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4. 4. 30.  
사회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24년 4월 9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24년 4월 22일
- 라. 상정일자: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4. 26.) 상정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복지국장 강현숙)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의 개편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, 해당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수형)

#### ○ 본 폐지조례안은

- 서울시 공공급식 체계의 개편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, 해당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

#### ○ 검토결과

- “도농상생 공공급식”은 2017년 서울시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‘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’를 마련하여 도농상생 및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, 우리 구는 2019년부터 관내 어린이집, 지역아동센터, 복지시설 등에 친환경 및 양질의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실시·운영하였음.
- 하지만,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운영하면서 ▲자치구별 식재료 품질·가격 편차 ▲공급 품목의 다양성 부족 ▲자치구별 공공급식센터 운영의 비효율성 ▲어린이집-유치원 간 식재료 안전성 차이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서울시는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공급식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('22년 7월 ~ '23년 2월)하였으며, 용역결과 현행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서울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등의 개선안이 제시됨.
- 서울시는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도농상생 공공급식을 2024년 1월부터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(서울친환경유통센터)로 통합·운영하였으며,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개편된 공공급식 체계로 전환함에 따라 2023년12월31일 도농상생 공공급식 운영을 중단하였음. 이에 존속이 불필요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제 329 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연월일: 2024. 4. 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서울시 공공급식 체계의 개편으로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종료됨에 따라, 해당 조례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」 폐지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3. 7.~3. 27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 
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